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이미영 / 발행일 2020년 12월 09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http://www.blue21.or.kr)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20년  
12월



##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이사장 정 우 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않은 일상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코로나의 기승이 심상치 않은 겨울의 들목에서 1년여 만에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소소한 일상생활뿐 아니라, 남북평화와 통일, 기후 위기, 삶의 질 향상, 검찰과 언론개혁, 복지 등 우리네 삶의 지향과 맞물린 좀 더 굵직한 화두마저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부 천박하고 저열한 정치 세력과 언론이 이 국면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평화 정착과 환경 보전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양극화 해소와 복지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절실함을, 또한 이를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 혁파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킬 것을 지키고, 함께 힘을 모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감싸야 할 때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삶이 조금 단순해지니까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거나 애써 보지 않고 살았던 무수한 독소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검찰 마피아, 토건 마피아, 원전 마피아 외에도 재경, 교육, 산업, 의료보건, 부동산, 심지어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권력의 탐욕이 온갖 카르텔을 형성하며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 종식이 어슴푸레하고 아득해지면서 우리 안에서 평화와 통일과 복지와 양극화 해소의 가치마저 아득해질까 두렵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개혁과 연대와 나눔의 과제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갈 길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음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때늦은 퇴직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삼십 몇 년 짧지 않은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했습니다. 늦었지만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제 삶을 둘러보면 호사가 따로 없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진 유.초.중.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문화원 이광철 고문님께서 《전북인권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으셨습니다. 창립 개소식(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올 가을엔 만경강 역새 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 눈부신 억새꽃처럼 우리 삶도 눈부시게 빛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연대의 끈 놓지 않고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 글 심는순서

02 인사말 - 잊지 말아야 할 것들

03 소식, 하나 - '제2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으로 진행

04 온라인 노가바대회

05 소식, 둘 - 향토 역사·문화 견기

06 소식, 셋 - 제53차 이사회 개최

07 교육 단상 - 만경강에서 꿈꾸는 교육생태계

08 교육 실천 사례 - 자유학기제에 희망을 걸다

11 책소개

12 회원을 찾아갑니다

회원동정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 ‘제2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으로 진행

— 온라인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

우리 문화원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20년을 지속해온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뿐 아니라, 기행, 세미나, 초청강연, 토론회, 워크숍 등 다채로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기획하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청중 없이 [평화·통일교육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통일노가바대회는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10월호 참조)



온라인 노가바대회는 초등 13팀 34명, 중등 20팀 51명, 시민 3팀 8명 등 총 93명이 참가하였다.

처음 시도한 방식이라 느낌이 새로웠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축제처럼 진행하던 지난 대회들의 감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덕분에 심사위원들은 심사하며 영상을 보는 내내 신나고 즐거울 수 있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은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가치이므로 참여 자체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대회 취지에 따라 상의 이름만 달리하였을 뿐 따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 함께한 모두가 우승자라 여기기 때문이다.

수상자 명단은 오른쪽 표와 같다.



### 제2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노가바대회 수상자

(참가 학교 이름 가나다 순)

| 부문/학교    |                | 참가자                | 수상 내역 |
|----------|----------------|--------------------|-------|
| 초<br>등   | 군산흥남초          | 4년 김*영 임*빈 전*니     | 민족화해상 |
|          | 남원 대강초         | 4년 강*원 김*영 노*영 허*엽 | 민족통일상 |
|          | 전주교대부설초        | 5년 박*정             | 민족협력상 |
|          | 전주반월초          | 6년 이*슬             | 민족통일상 |
|          | 전주반월초          | 6년 박*서 박*일 이*람     | 민족화해상 |
|          | 전주반월초          | 6년 나*성 박*민         | 민족평화상 |
|          | 전주북일초          | 6년 강*언 노*영 박*영     | 민족행복상 |
|          | 전주북일초          | 6년 박*호 심*          | 민족통일상 |
|          | 전주용흥초          | 5년 김*린 오*원 이*림     | 민족화해상 |
|          | 전주용흥초          | 4년 이*원 정*주 조*성     | 민족평화상 |
|          | 전주효림초          | 5년 양*은 이*아 황*희     | 민족협력상 |
|          | 전주효림초          | 5년 구*경 이*연 이*울     | 민족평화상 |
|          | 전주효림초          | 5년 김*호 윤*우 홍*채     | 민족행복상 |
| 중<br>등   | 부안계화중          | 2년 김*원 오*인 최*관     | 민족통일상 |
|          | 정읍 서영여고        | 1.2년 김*우 박*빈 윤*희   | 민족화해상 |
|          | 정읍 서영여고        | 1년 김*원 박*희 조*은     | 민족행복상 |
|          | 정읍 서영여고        | 2년 심*서 유*연 이*주     | 민족평화상 |
|          | 이리공고(사제합동)     | 1년 도*우 이*훈 (교사)남*팔 | 민족협력상 |
|          | 전라중            | 3년 박*은 장*윤 정*인     | 민족통일상 |
|          | 전북대사대부고        | 1년 강*현 이*현 장*희     | 민족평화상 |
|          | 전북대사대부고        | 1년 임*흔 정*윤 정*정     | 민족통일상 |
|          | 전북대사대부고        | 1년 정*아 허*원         | 민족평화상 |
|          | 전북대사대부고        | 1년 김*희 양*원         | 민족행복상 |
|          | 전북대사대부고        | 1년 이*유 이*현 한*은     | 민족화해상 |
|          | 전북대사대부고        | 1년 고*람 원*은         | 민족협력상 |
|          | 전주남중           | 1년 배*솔 이*빈         | 민족화해상 |
|          | 전주남중           | 1년 김*욱 심*현         | 민족행복상 |
|          | 전주남중           | 1년 김*현 최*호         | 민족협력상 |
|          | 전주남중           | 3년 유*서 창*별 최*민     | 민족통일상 |
|          | 전주남중           | 3년 김* 최*경          | 민족화해상 |
|          | 전주남중           | 3년 권*우 김*연 박*아     | 민족평화상 |
| 전주남중     | 3년 유*훈 정*수 한*성 | 민족협력상              |       |
| 장수 한국마사고 | 2년 한*훈         | 민족행복상              |       |
| 교사/시민    |                | 송*선 이*영 황*진        | 민족통일상 |
|          |                | 김*숙 온*숙 정*숙 홍*희    | 민족평화상 |
|          |                | 정*식                | 민족화해상 |







**【편집자 주】** 우리 문화원 향토 역사문화 동아리가 주관하는 향토 역사문화 걷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한동안 멈췄다가 11월에 모처럼 재개했다. 익산 춘포 역사문화 답사 뒤 만경강 역사길을 조망하며 걸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다시 당분간 중단한다. 또 걷기 뒤에 쓴 이미영 대표의 신문 기고문을 [교육 단상]에 실는다.

## ‘만경강 역사길-춘포’를 걷다.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걷기 좋은 곳은 아마도 만경강 물역새길일 것 같다. 본원에서는 몇 달 만에 향토 문화걷기 행사로 가슴이 시원한 만경강 역사길과 춘포지역을 답사하였다.

11월 7일(토) 10시, 집결지인 춘포역에는 20여명의 교사, 회원들이 모였다. 모처럼 야외에 나오니 반갑고 가족 단위 참가자가 여러 팀 있어 분위기도 훈훈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이라는 춘포역사는 초라하였고 문도 잠겨있어 안타까웠다. 먼저 이미영(본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에게 만경강을 중심으로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제의 수탈과 침략사를 들었다. 러일전쟁(1904) 직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대농장, 전국 최초 신작로인 전군도로 완공(1908), 철도 부설(춘포역 1914) 등, 관개시설을 위한 수리조합, 만경강 대아댐(1922), 직강공사(1925-39)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고을소작제에 착취당하고, 관개공사에는 수십만 명씩 동원되어 맨몸으로 일했던 농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였다. 특히 춘포(일제 당시 대장촌)엔 러일전쟁 직후 호소카와가 등 일본인들이 진출하여 순일본식 촌락을 조성하였으며, 춘포역





(당시 대장역)은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가는 주요 통로였다.

비자민당 출신 첫 총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일본 전 총리)가 대장촌 대지주였던 호소카와의 손자인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유일하게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며 잘못된 전쟁이었다.” 한반도 식민통치에 대해 “참기 힘든 고통을 끼쳤다. 우리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마음으로부터 사과드린다.”는 반성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일행은 정우식(본원 이사장) 선생의 안내로 춘포역에서 걸어 구 일본인가옥(국가 등록문화재 제211호)으로 향했다.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비교적 보존이 잘 된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으로 호소카와 농장 관리인 에토가 1940년경 농장 안에 지은 2층 건물이라고 했다. 부근에 1914년 호소카와 일본인 대지주가 세웠다는 도정공장인 대장공장은 일반 정미소 12개 규모인 정미기 12대를 가동했을 정도로 대규모 공장이었다고 한다.



이윽고 구하도(직강공사 이전)였던 우각호를 지나 만경강 독에 올라서자 드넓은 억새바다가 나타났다. 기행단은 구담교 가운데로 걸어가 장쾌하게 흐르는 만경강과 만개한 억새바다를 조망하였다. 지금은 억새밭이지만 과거엔 독 안에도 대부분 논농사를 지었고, 1960, 70년대만 해도 춘포, 백구 일대엔 만경강 모래짐을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씩 춘포역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일행은 춘포나루 방면으로 강둑을 걸으며 또는 자전거도로에서 드넓은 강변을 마음껏 감상하였다. 춘포나루에 도착하니 제법 폭이 넓어진 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여행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정자에서 김밥을 먹으며 정우식 선생으로부터 물억새와 억새를 구분하는 법, 춘포의 본 이름인 봉개, 삼포리, 창평리 등 마을이름의 유래를 들었다. 안타깝게도 철새 조류독감 예방으로 억새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기에 다시 강둑을 따라 출발지인 춘포역으로 향했다. 한낮이라 가을 햇볕이 뜨거워 독길을 걸으며 바라보는 억새바다가 더 좋았다. 소설가 윤홍길과 정양 시인 등의 작품이 있는 춘포문학공원을 둘러보며 춘포역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다. 이번 만경강 억새길을 걸었던 대부분 참가자들은 만경강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전북도민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만경강을 청소년들의 교육문화공간으로 꼭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소식 셋

### 제53차 이사회 개최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

제53차 이사회가 11월 25일 오후 6시 본원 교육실에서 정우식 이사장의 의사 진행으로 열렸다.

활동보고 및 각종 보고에 이어 상정된 안건인 ‘2021년 사업계획 및 2021년 예산(안)’을 처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만경강에서 꿈꾸는 교육생태계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깊어가는 가을, 해가 질 무렵에 바라본 만경강의 역새 바다는 장엄하였다. 만경강변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물억새 풍경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숨이 멎을 듯 산하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다. 더구나 만경강에 기대어 삶을 이어온 전북도민이라면 어릴 적 추억 한 자락은 안고 있을 것이다. 익산(구 이리)에서 자란 필자도 학창시절, 이리와 백구를 잇는 목천포 다리가 있는 둑 안 논에서 모내기봉사를 했던 기억, 통학기차를 타고 춘포역(당시는 대장역)과 삼례를 지나며 차창으로 너른 들판과 만경강을 바라보며 대학을 다녔던 추억이 있다. 당시 춘포에 사는 선배로부터 어릴 적 보았다는 ‘만경강 모래찜’ 풍경은 장관이었다고 얘기들은 것도 생각난다.

만경강은 오롯이 전북의 강이다.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만경강은 고산천과 소양천, 전주천과 삼천천, 익산천, 탑천 등 지류와 합류하며 군산과 김제 사이의 넓은 하구를 통해 서해로 나간다. 조선시대에는 만경강을 사수라고 불렀는데 조선의 본향인 전주를 흐르는 강이라고 하여 중국 한고조 유방의 고향에 흐르는 강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만경강은 자유곡류하천으로 주위에 기름진 충적평야를 형성하여 전북지역을 최대 곡창지대로 만들어주었다. 또한 전형적인 감조하천이었기에 밀물과 썰물에 따라 배가 드나드는 수운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춘포 봉개나루엔 많은 상선이 오갔고 삼례에도 고깃배들이 드나들었다. 삼례의 마을 이름인 해전리에서 당시 만경강의 조수기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름진 평야를 거느린 만경강은 일제의 야욕에 가장 먼저 수난을 당하는 처지가 된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들은 재빨리 전북에 들어와 대농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전주 동산농장, 춘포 호소카와농장, 서수 이엽사농장, 군산 불이흥업농장 등 수많은 일본인 농장이 설립되며 전북은 일제의 식량공급지로 전락되었다. 일제는 수탈한 쌀을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전국 최초 신작로인 전군도로를 1908년에 완공하고 1914년에는 이리와 전주를 연결하는 사설철도인 경편철도를 가설하였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개시설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바로 만경강의 직강공사와 대아댐 건설이다. 1922년 완공된 대아댐, 1925년 시작하여 1939년까지 진행되었던 만경강 직강공사에 동원된 수십만 명의 농민들의 고난은 어떠했을까 짐작해본다. 서수 이엽사 농장의 농민들이 소작율 75%에 시달리다 항거했던 옥구농민항일항쟁을 보면 만경강은 일제강점기 고율소작제에 착취당하던 농민들의 저항과 눈물의 강이기도 하다.

만경강을 짧게나마 살펴본 이유는 전북의 교육생태계를 생각해보기 위해서이다.

이제 교육의 방향은 학교와 지역이 연결되고, 마을의 역사와 자원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마을사람들이 교사로 결합되는 교육생태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생태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어 있기에 교과서만을 습득하는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 경쟁이 아닌 협동과 상호작용 관계를 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만경강은 바로 교육생태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공간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자유학년제나 현장체험학습기간에 전북의 아이들이 2박 3일간 만경강을 따라 걷는 상상을 해본다. 도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강, 역사와 문학의 현장, 생태 환경교육의 장, 만경강을 바라보며 건강한 교육생태계, 지역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이유이다. (출처: 2020.11.23. 전북일보 기고문)



## 자유학기제에 희망을 걸다

김 찬 영 (정읍여중, 회원)

【편집자 주】 지면 제약으로 원고 일부만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원고 전문은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www.blue21.or.kr](http://www.blue21.or.kr))에서 ‘자유학기제 실천 사례-김찬영’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5년은 내 인생 최악의 교직 생활이었다. 친구 등에 침을 뱉은 학생을 지도하려다가 난생처음 들어 보지도 못한 거친 욕을 들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거침없는 욕지거리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학생들을 만났다면 누구도 멀쩡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너무 떠들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과 담배연기가 자욱한 교실복도, 그리고 계속된 친구 간의 학교폭력, 교문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학부모를 보면서 함께 근무하던 선생님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졌다. 나도 역시 담임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대다수 교사가 기피하는 자유학기 업무를 처음 맡게 된 것은 2016년이었다.

자유학기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맨 처음 시작하는 자유학기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유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연수를 받고 안내 책자를 뒤적거리며 자유학기가 이전의 교육부가 추진하던 연구학교와는 달리 꽤 쓸 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과 함께 긴 시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돈다. 교사가 된 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 자유학기는 교사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요리책을 보고 레시피에 따라 요리하던 방식이 아니라 교사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안의 또 하나의 자율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이나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바닥까지 무너진 교실과 교사의 자존감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자유학기를 통해 보이기 시작했다.

### 폭넓게 바라보고 생각을 키우는 주제선택수업

학생의 흥미·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주제선택수업은 학급수와 교사의 수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을 모두 존중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6학급인 우리 학교는 1학기는 2가지 주제수업을 선택 없이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4개 주제로 하나의 블록(16차시 주제 × 4개의 주제)을 만들고, 학생들이 6개의 블록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중략)



생물 변이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국화 화분을 만드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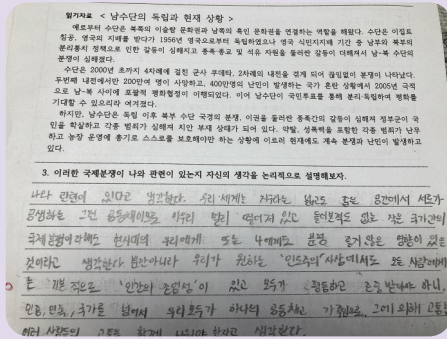


멸종위기 생물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홍보 그림 그리기 작품



## 나를 알고 나의 꿈을 알아가는 진로활동

중학교 1학년에게 십 년 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미래의 자신의 직업을 정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중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적성, 흥미에 대해 알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를 알아보기 위한 8차시의 MBTI수업과 진로가치관 검사,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는 주제의 직업 알아보기, 그리고 자신의 진로의 탐색과정을 소개하는 나의 꿈 발표대회로 진로활동을 마무리하는 34차시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략)



‘세계시민으로서의 진로가치관’ 보고서



mbti검사와 해석 및 친구 이해하기 활동



농촌체험활동 고구마 캐기



직업체험 가상현실 전문가



농촌체험 마을소풍 떡 만들기

## 즐겁고 건강하게! 창의력 쑥쑥 예술·체육활동

‘학교는 즐거워야 한다!’ 평소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가 늘 즐거울 수는 없다. 그런데 2016년 2학기 자유학기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학생들로부터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져요.’라는 말을 들었다. 학생참여수업과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나 실생활과 연결되는 활동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다. 특히 기술가정 주제선택수업인 ‘수필 속의 요리’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15명 내외로 반을 편성하고 운영했던 예술·체육수업 또한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2016~2018년 학년말 1학년 축제인 자유학기 발표회에서 거의 1학년 학생들이 무대에서 발표를 했고 학생과 선생님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는 발표회가 진정한 축제라며 힘들지만 보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 또한 무대 위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찬 박수와 함께 큰 함성으로 격려했다. 학교다운 학교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당시 교감선생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런 맛에 고생을 하는 거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자유학기 운영이 어려웠다. 예술활동반은 학급수보다 2개 반이 더 많은 8개 반으로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체육활동은 장소의 협소함을 고려하여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편성했다. (중략)





예술활동 우쿨렐레



예술활동 사물놀이



체육활동 필라테스

## 고사기간을 이용한 교과융합수업

자유학기제란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0학년도부터 전북 대부분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 4회의 고사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도 컸다. 그러나 이 기간은 편하게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업이나 교과융합수업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체험활동 2회, 교과융합수업 2회를 계획했다. (중략)



동아리활동 가죽공예



진로체험 우리 고장 문화재 탐방



동아리활동 Talk & Cook

수업 후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고, 반별로 학습의 성취도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융합수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우수한 보고서에 대해 학생수 20%에 달하는 학교장상을 시상하도록 하였다. 주제선택수업이나 교과융합수업의 학업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지 또는 보고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할 때 학생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고, 여기에 시상이 있으면 수업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때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의 수준을 생각하면 백지 보고서는 학생들에게 막막한 느낌을 주어 오히려 성취동기를 떨어뜨린다. 막연한 주제의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과 직접 체험한 활동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수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최초의 자유학기제는 1974년 아일랜드에서 시험의 압박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폭넓은 학습경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의 지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했고, 큰 학교에서는 수업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했다. 근래에 주변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자유학기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해마다 자유학기 담당교사가 교체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은 교사 자율권 확대, 학생들의 사고 확장,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공교육의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학기를 진행하면서 동료교사들의 높은 책임감과 창의적인 수업개발 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수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유학기제는 교사들의 자존감과 공교육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책 소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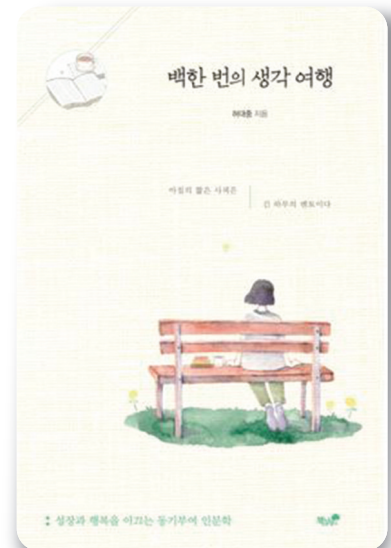
# 백한 번의 생각여행

- 허대중 지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지금까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팬데믹이 1년여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은 가히 번아웃증후군(번아웃증후군)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자기 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다. 교육제도 예외는 아니다.

번아웃증후군으로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이 있다. 허대중의 《백한 번의 생각 여행》이다. 이 책은 ‘성장’과 ‘행복’이라는 핵심 주제로 우리에게 일상에 대한 감사, 훈훈함, 이웃에 대한 고마움, 자존감, 관계 맺기, 꿈, 자연이 주는 은혜 등에 대한 성찰과 반조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로 무기력과 허무감 등 번아웃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

이 책의 백미는 단순히 읽고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101개 각 주제 글에 대한 작가의 핵심 질문을 통해 독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직접 책에 써 보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여행’을 직접 써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미래의 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주제마다 소박함으로 평안함을 주는 삽화(일러스트레이션)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 우리 문화원에서 ‘청소년 추천도서’로 선정하였다.



## [책 소개 2]

# 마을교육공동체

- 생태적 의미와 실천 (김용련 지음) -

“마을이 하나의 학습 생태계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 배움이 학교라는 틀에서 정체되거나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시대적 흐름이자 교육운동, 사회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 농촌 작은학교살리기운동에서 시작되어 혁신학교운동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주민이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실천을 고민하면서 마을과 학교, 주민이 교육주체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화, 연대, 공유와 상생이라는 관점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변화의 화두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다”며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교육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실천사례보다 학술적 성격과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교육현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회원을 찾아갑니다.]

## 노화북초 영양교사 이미영 회원

【편집자 주】 이번호부터 회원 소개 코너를 신설한다. 첫 손님을 만나러 전남 노화도를 찾았다.

첫 번째 소개할 회원은 멀리 전남 노화북초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이미영 회원입니다.

11월 20일, 완도 화흥포항에서 배를 타고 30여분 가니 노화도 동천항입니다. 마중 나온 섬마을 선생님 이미영 회원의 안내로 노화도 섬을 한 바퀴 돌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화북초는 학생, 교직원이 120여명이나 되는 섬마을 학교로는 제법 규모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노화도는 주민들의 전복 양식이 활발하고 또 ‘옥’ 산지로도 유명한 곳이더군요. 노화도와 보길도는 다리가 놓여 있어 하나의 섬 같았습니다. 덕분에 이튿날은 보길도 일주도 했지요.

이미영 회원은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했으나 평생의 꿈이었던 영양교사를 뒤늦게나마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푸짐한 전복 요리를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다고 자랑하더군요. 멀리 타향 섬마을학교 관사에서 생활하지만 행복한 회원과 섬에서 이별하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저도 가슴이 뿌듯해지더군요.

이쯤 되면 이름 때문에 혼란스런 회원들이 있을 것 같네요. 이미영 회원은 저와 동명이인으로 고3 때도 같은 반이었으니 껍이나 인연이 깊지요?

(탐방/글 편집인 이미영)



### 회원 동정, 행사 안내

한 해 동안 소중한 회비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1월초에 발급해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63-905-0218, 010-6337-9364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 허대중(꿈이룸터 이사장)
- \* 송옥진(초등교사)

